

특전사 727동기회, 특수전학교 발전기금 전달·기념비 건립

등록 2018.07.19 17:17:31



【광주=뉴스시스】특전사 727 동기회는 지난 14일 경기도 광주에서 대한민국 유일의 특수작전 전문교육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전학교 발전기금을 전달, 동기회 기념비 건립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재인 기획부장, 박병렬 사무총장, 김학두 5대 회장, 최연수 회장, 이민하 추진위원장, 최장환 대외협력부장, 이현복 추진위원, 강달중 홍보부장의 모습.

【광주(경기)=뉴스시스】수도권취재팀 = 특전사 727 동기회(회장 최연수)는 지난 14일 경기도 광주에서 대한민국 유일의 특수작전 전문교육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전학교 발전기금 1000여만원을 전달하고, 동기회 기념비 건립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727 동기회 회원 및 가족과 특수전학교 주임원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전기금은 727 동기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2210만원 가운데 기념비 제작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전액이다.

727동기회는 지난 1977년 7월27일 210명이 특전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한 뒤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기본 훈련을 이수했다. 이후 특수전학교 전신인 특전교육대에서 공수훈련과 특수전 교육을 이수했다.

1978년 2월4일 183명이 하사로 임관해 특전여단 정예특전요원으로 4~5년 복무하다 전역했다. 18명은 만기까지 복무하고, 지난 2014년 12월31일 전원 전역했다.

최연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우린 검은 베레의 긍지와 자존으로 끓는 피와 청춘을 나라와 특전사에 묻고자 이곳에 몸과 마음을 심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 누구도 부인 못 할 획을 그었고, 자랑스런 역사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렬 사무총장은 “군 입대 41주년을 맞아 특전요원의 마음의 고향 특수전학교에 동기생들의 혼을 새긴 동기회 기념비를 건

립해 제막식을 거행하고, 세계 최강의 후배 특전요원 육성을 위한 재단설립에 동참하기 위해 특수전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민하 기념비건립추진위원장은 “현재 특수전 학교는 국제적 수준으로 그 위상을 평가 받고 있다”며 “모태인 공수특전단은 물론 육·해·공군, 해병대 및 대외기관 특수요원 등에게도 특수작전 교육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세계에서 7번째이며, 비영어권 국가 가운데 최초로 ‘美 합참 합동화력지원 시행조정위원회’로부터 JFO(연합합동화력관측관양성학교)로 인증 받았다”고 전했다.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